

A Study on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 Jung Kim^{1#}, Jong-ha Kim²⁺

¹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Nation Defense Strategy,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Korea

² Department of Politics, Communication and Defense Studies,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ypes of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diplomatic commitments to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for the security of his regime. Second, North Korea sanctions should remain in place until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rd,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must be reinforc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Fourth, a 'win-win'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hould be used, eve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nclude that South Korea needs to boost strategic and tactical responsiveness in the debates on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prepare for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o ensure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Key words: crisis management strategy, negotiation strategy, denuclearization

1. 서론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안보위기이다. 이러한 '핵 위기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떤 위기관리와 협상전략을 추구하여야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가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2016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지금까지 그 어떤 경제적 제재보다도 강하고 실효적이었다. 왜냐하면 5차 핵실험까지의 대북 제재는 군수물자 수출입 금지, 금융제재 등 수준이었으나, 북한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유와 정유제품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재를 탈피하고자 북한은 그동안 조장해 왔

The 1st author: Ho Jung Kim, Tel. +82-42-629-7234, e-mail. ogoskim@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Jong-ha Kim, Tel. +82-42-629-8439, e-mail. jong-ha44@hanmail.net

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도 2018년 2월 9일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담을 실시하고 모두 3항 13조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교류협력 사업 분야 등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거의 70여 년간 남북 간에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군사적대 관계가 일순간에 청산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동년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시행하겠다는 합의문²⁾을 발표하였다.

남북한 간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당장 폐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무기연구소의 전임 이사였던 Siegfried S. Hecker 고문은 “미로로 연결된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물로 인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까지는 최고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The New York Times, 2018.05.28.). 또한 북한은 지난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의 결속을 선언하는 등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실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한국의 안보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핵 위기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위기관

리전략과 협상전략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위기관리 원칙과 성공요인

북핵 위협은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미국까지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적 원칙으로써 위기목표 및 수단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예방공격도 있지만, 이는 협상의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때, 즉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최악의 경우에 이행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의 발발 없이 국가이익 달성을 위해 쌍방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 이때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적 원칙은 쌍방이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되 적대국을 희생하는 목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쌍방이 상대국 이익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추구한다면 위기의 확대와 이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결국 이익의 갈등이 유발되어 위기가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George, 1991: 24).

Alexander L. George에 의하면 위기를 관리하거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고려사항과 군사적 고려사항은 물론 정치지도자 간의 근본적인 갈등과 마찰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딜레마라고 하였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Chosun.com, 2018.05.25.). 이러한 것은 정치적 및 외교적 조치의 적절한 조화 차원에서 위기관리의 작전

1)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이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것 ② 남과 북은 참여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

2)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간 최초로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4개 항을 합의하였으며, 주 내용은 ① 완전한 비핵화 ② 평화체제 보장 ③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④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이다.

적 원칙 혹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양측이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상황판단, 계획수립과 결정, 그리고 제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적당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George, 1991: 25).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지만, 국가 간에 있어서 협상과 위기관리에 있어서 자국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얼마든지 결렬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적의 오판을 피하기 위한 공약과 결의전달(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to avoiding miscalculation by the adversary)전략이 있는데 이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위기관리전략으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즉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목적 중 체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체제보장에 대한 공약전략을 비핵화 해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James L. Richardson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강박관념 등을 부여하는 시간적 압박을 해소하고 긴밀한 의사전달 채널을 유지함은 물론 상대방으로 하여금 퇴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매우 절제된 당근과 채찍이 병행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에 있어서 효용성을 높인다고 하였다(Richardson, 1988: 18-22).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적인 정책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더 이상 위기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절히 부합될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고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효과적인 위기관리전략을 선택하여 이를 협상전략과 연계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조치의 적절한 배합 및 균형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협상전략의 형태와 성공요인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하여 ‘세기의 회담’이라 일컫는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수십여 일 간의 실무회담을 거쳐 정상

간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큰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미 간의 치밀하고 침예한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상은 일상 생활 뿐 만 아니라 국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상은 거대한 협상태이بل이며 모든 것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Cohen, 1982; Cheon, 2005: 299). 그러면 협상전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협상전략(negotiation strategy)이란 협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협상목적 달성을 위한 거시적 수단이나 기획이다(Cheon, 2005: 301).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혹은 북미 간에 어떠한 협상전략을 추구하여야 하는가를 협상전략의 형태를 알아봄으로써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협상전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협상전략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Cheon, 2005: 301), 이를 적절히 이용할 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협력전략(cooperative strategy)이다. 이는 협상 참여자들이 협동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전략(cooperative problem-solving strategy)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분쟁이 된 문제도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들 간 상호 호의적인 관계도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다. 이는 나도 잘되고 상대방도 잘되는 “I Win-You Win” 전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화전략(smoothing strategy)이다. 이는 양보전략이고 순응전략이며, 화해전략, 수용전략, 그리고 굴복전략이다. 상대방이 제시한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협상의 가능성을 높히려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욕구와 주장에 자신의 욕구와 주장을 조정하고 순응시켜 굴복한다는 것이다. 즉 협상으로 인해 돌아올 결과보다는 상대방 간의 관계유지를 선호하여 상대방과 충돌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전략으로 “I Lose-You Win” 전략이다.

셋째, 회피전략(avoiding strategy)이다. 이는 무행

동(inaction)전략으로 협상을 피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 또는 철수하는 전략이다. 회피전략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나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하고, 자신이 얻게 되는 결과 등에 관심이 없을 때 상대방과의 협상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I Lose-You Lose” 전략이다.

넷째, 강압전략(forcing strategy)이다. 이는 공격적 전략이며 경쟁(competitive)전략이다.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I Win-You Lose”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타협전략(compromising strategy)이다. 이는 협상 당사자들 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양보와 협상 참여자 간의 거래(bargaining)를 가정하고 있다. 즉 강압전략이나 협력전략 등의 전략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협상 참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충안(middle ground alternatives)을 실시하는 전략이다.

이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자국의 이익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원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영원한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상호 간의 목적을 달성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해 협상전략 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전략과 연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II. 북핵 개발과 대북제재 현황 분석

1.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추진현황

북한은 핵개발이 진행되던 기간 내내 국제사회로부터

터 고립과 경제제재가 계속되어 국내적으로도 정치·경제적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였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6.25전쟁 때 만주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에게 자극을 받았을 것이고, 전쟁 후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술핵무기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Kwon, *et. al.*, 2014: 128). 둘째 1960년대 중·소 분쟁의 영향으로 자국을 독자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Kwon, *et. al.*, 2014: 129). 셋째 선군정치 당면 목표인 ‘안보위협 해소’를 달성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함은 물론 김정은 정권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역에 대해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했을 것이다. 다섯째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한국과 미국 등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손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국방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사망하자 실질적 북한의 제1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이미 개정된 헌법과 당 규약에 따라 동년 12월 30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을 거쳐 2012년 7월 17일에는 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됨으로써 북한의 당·군·정 모두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서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후 ‘당 국가체제’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자신의 롤 모델로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핵무력 건설정책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김일성은 1961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채택

하였는데, 김정은은 이를 답습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추구하는 병진전략을 제시하였다(An & Joo, 2017: 165).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서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첫 번째 수소폭탄 시험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다(KCNA, 2016.01.06). 또한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불패의 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을 명시하였으며, 핵무기를 작전·전술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6.25전쟁이 종료된 이듬해인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방위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55년 과학원 2차 총회에서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1959년에는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영변에 핵연구단지를 조성하였다(Kwon, *et. al.*, 2014: 128).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 핵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하였으며(Cho & Kim, 2014: 129), 196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자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였고 1976년에는 동위원소생산연구실을 설치하였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는 대신 1974년 9월 IAEA에 가입하였으며, 1985년 12월에는 NPT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1986년 10월에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전기출력 5MWe 원자로로 정상가동하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정무원 산하에 원자력 공업부를 신설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에 원자력 총국을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한 행정부의 관할체계를 정립하였다(Kwon, *et. al.*, 2014: 129-130). 이로써 북한은 198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가 거의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Park, 2014: 31).

이러한 북한의 원자로 정상가동 등의 활동을 감시하

기 위해 IAEA는 안전조치협정안을 1987년 6월에 북한에 전달하였으며, 미국은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에 북한이 이미 비밀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한국, 일본, 중국 및 소련에도 통보하였다(Don, 1997: 255-256; Kong, 2017: 8). 북한은 1992년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면서 핵사찰을 수용하였으며, 동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IAEA는 사찰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이 IAEA에서 추정된 양과 수 kg이 차이가 나서 특별사찰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12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으며, 이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Park, 2014: 33).

이에 미국은 1994년 9월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렇게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카터-김일성 간의 극적인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NPT 및 IAEA 사찰에 응하겠다는 합의를 한 후에야 감소되었다.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대표단은 북경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6자회담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9월까지 6차에 걸쳐 회담을 실시하였지만,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폐기 신고를 완료하겠다는 북한이 약속을 저버리는 등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논란이 가중되면서 6자회담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 심지어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인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계속되는 국제적 강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에는 폭발력이 약 50kt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히로시마 원폭(15kt급)의 수 배에 해당되는 폭발력이었다. 또한 동년 11월 29일에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위협에 대한 국가적 생존을 보장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Table 1. North Korea nuclear test status

Category	1st	2nd	3rd	4th	5th	6th
Date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Place	Punggye-ri, Gilju-gun, Hamgyeongbuk-do					
Nuclear raw material	plutonium		uranium or uranium + plutonium	Boosted Fission Weapons (duplication hydrogen & triple hydrogen or lithium -6)		
Seismic Wave Scale	3.96Mb	4.5Mb	4.9Mb	4.8Mb	5.04Mb	5.7Mb
Estimated explosive power	1kt	2~6kt	6~40kt	6~12kt	10kt	120~304kt
etc.	-	-	-	nuclear miniaturization · lightweight possibility	nuclear warhead standardization possibility	hydrogen nuclear weapon, miniaturization completion possibility

※ Source: Chosun.com(2016.01.06); The Kyunghyang Shinmun(2017.09.03).

북한의 핵실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Table 1> 와 같다.

2. 북핵 위협 및 능력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미 6차 핵실험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kg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프로그램과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생산능력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27).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지역을 비롯해 40~100곳의 핵시설이 있으며 핵 관련 건물은 400여 개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핵과학자협회는 ‘2018 북한 핵능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생산한 핵분열 물질은 플루토늄 20~40 kg, 고농축 우라늄 250~500kg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연간 핵탄두 6~7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지녔으며, 지금까지 완성한 핵탄두는 16~32기 정도로 추정했다(Hani.co.kr, 2018.05.07).

러시아 전 전략미사일군 참모장 빅토르 예신(예비역 대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은 30~35개의 핵탄두를 갖

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몇 개는 수소탄 탄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은 현재 연 7개까지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머지않아 연 10개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Yonhapnews, 2018.06.11).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으로 봤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1945년 나가사키 원폭 TNT 2만1000t, 히로시마 원폭 1만5000t’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 핵실험은 1차 800t, 2차 2200~4000t, 3차 8000~1만t, 4차 1만t, 5차 1만t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는 TNT 5만 톤 정도의 폭발위력으로 나가사키 원폭 폭발력의 2.5배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The Kyunghyang Shinmun, 2017.09.03).

이러한 핵무기는 고도화된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타격할 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맥킨지(Matthew G. McKinzie)와 코크란(Thomas Cochran)은 15kt(1kt은 TNT 1000t 해당)의 핵무기가 서울 500m상공에서 터지면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McKinzie & Cochran, 2004; Park, 2017: 125).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20kt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뒤 서울 도심 상공 100m에서 터뜨린다면 최대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고 봤다(Joongang.joins.com, 2017.10.15.).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21일에는 잠수함 장거리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를 하였다. 급기야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인 화성 15호를 최

대고각으로 발사하여 약 13분 비행 후 960km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의 최대 고도는 약 4,500km였으며 비행거리는 약 960km로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였다. 이 탄도미사일이 정상궤도로 발사된다면 평양

Table 2. North Korea mid-long range missile capability

Category	SCUD-B	SCUD-C	Nodong ballistic missile	Musudan missile	Daepodong-2	Daepodong-2 improved type
North Korea Name	Hwasung-5	Hwasung-6	Hwasung-7	Hwasung-10	Hwasung-14	Hwasung-15
NATO Name	KN-03	KN-04	KN-05	KN-07	KN-14	?
Range(km)	300	500	1,300	3,000 or more	10,000 or more	13,000 or more
Missile Weight(kg)	1,000	700	700	650	650~1,000	Heavy-weight nuclear warhead possibility

※ Sour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2016: 239); Edaily(2017.05.16).

Table 3.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2006, US local tim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ituation	Main Content
2006. 7. 15 (No. 1695)	Launch Taepodong 2	• Prohibition of transfer of missile-related materials, goods, technology, and resources to North Korea
2006. 10. 14 (No. 1718)	1st nuclear test	• Organizations and personal financial assets frozen by the sanctions committee • Prohibition of nuclear, missile, tank, etc.
2009. 6. 12 (No. 1874)	2nd nuclear test	• North Korea prohibits all arms exports, and prohibits the import of all weapons-related materials other than small arms. • Suspicious ship search on the high seas or near the harbor
2013. 1. 22 (No. 2087)	Long-range rocket launch	• Strengthen monitoring of Nor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ctivities, expanding and strengthening sanctions targets by adding 6 institutions and 4 individuals • Establishing search criteria for suspicious vessels on the high seas • Prohibition of WMD, missile-related financial transactions, etc.
2013. 3. 7 (No. 2094)	3rd nuclear test	• Prohibition of North Korea's financial transactions suspected of related to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 Mandatory search for all cargo in North Korea's exports and imports
2016. 3. 2 (No. 2270)	4th nuclear test, Long-range rocket launch	• Prohibition of North Korea's technical cooperation on ballistic missile • Prohibition of North Korea's the export, supply and transfer of iron, coal and iron ore
2016. 11. 30 (No. 2321)	5th nuclear test	• Upper limit of North Korean coal exports (exports \$ 400 million) • North Korea embassy and staff bank account restrictions in overseas
2017. 6. 2 (No. 2356)	Ballistic missile launch	• 4 institutions, 14 individuals additional sanctions
2017. 8. 5 (No. 2371)	ICBM launch	• Prohibition of export of major minerals and aquatic products such as coal, iron, and iron ore, new overseas workers
2017. 9. 11 (No. 2375)	6th nuclear test	• Crude oil supply limited to 4 million barrels per year • Limited to half a million barrels of oil refinery products 'first oil sanctions', prohibition of export of textiles made in North Korea
2017. 12. 22 (No. 2397)	ICBM launch	• Refinery products reduced to 500,000 barrels per year • Documented further strengthening of oil restrictions in additional provocations of North Korea • North Korean workers who work overseas are repatriated within 24 months(More than 40 countries, (Estimated 50,000 to 100,000 people)

※ Source: Yonhapnews(2017.12.20); Wikipedia.

에서 워싱턴 DC를 넘어설 수 있는 13,000km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Joongang.joins.com, 2017.11.29).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은 <Table 2>와 같다.

이러한 미사일에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로 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와 잠수함을 이용하여 발사 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 북핵 개발 억제를 위한 대북제재 현황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1차 위기는 북한이 1992년 IAEA의 핵사찰을 불응하고 1993년 3월 NPT를 탈퇴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미국·중국·러시아·북한·일본 등 6개국 이 중심이 된 6자회담을 결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핵 보유를 선언하였고 지속적인 핵실험을 해왔다. 그 때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사항을 상정하고 채택하였다. 지금까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사항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때 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게 정치·외교·경제적 제재를 함으로써 핵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강도를 살펴보면, 5차 핵실험까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군사물자 수출입금지와 몇몇 기관·인사들에 대한 금융제재 등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 수준에서는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차 핵실험이 발생한 이후 유엔 안보리 2375호에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써 북한의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정유제품 또한 절반에 가까운 200만 배럴로 동결하였다. 이는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전체 유류량은 30%정도 차단되는 효과이다(Hankookilbo.com, 2017.09.12).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지만, 1차~5차까지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는 6차 핵실험 때만큼이나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없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북한 내부적으로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 피해조사를 활동케 하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회담의 장(場)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대북 경제적 제재와 별도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위해 201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항공모함 3척이 차례로 한반도에 전개하여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니미츠함과 이지스구축함 11척,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2척을 포함해 7척이 참가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6일에는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F-35 등이 전략폭격기 B-1B와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대북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대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금년 들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전략적 성공요인이 되었다.

IV. 북핵 폐기를 위한 효과적 위기관리전략 및 협상전략 방안

Brodie는 핵무기 보유는 질과 양에 관계없이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대적 우세로 평가된다고 하였다(Brodie, 1946: 75).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세계안보 위협을 조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은 한반도 안보에 절대적 위협요소이다. 또한 미국에게는 미국 중심의 패권적 세계질서유지에 도전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불인정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강하게 대북제재를 주도하여 왔다.

한국도 역시 한반도의 주인 국가로서,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지향하는 책임국가로서 북핵 폐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에 북미정상회담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CVID의 전체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핵은 폐기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하여 이를 검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위기관리전략 및 협상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전략(Commitment Strategy)을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체제이다. 또한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적 중에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통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김정은에게 최상의 당근인 셈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테러지원국 등 경제와 감시대상 국가였다. 그렇다고 해서 2017년 11월 20일 미국이 재지정한 테러지원국을 당장 해제해서도 안된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체제 안정화를 약속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 북한의 평화가 보장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정치·외교적 공약을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강력한 경제적 봉쇄를 통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다. 북한은 그동안 강경하게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왔지만, 6차 핵실험 이후 원유와 정유제품 등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마침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안보리 2375호 채택 이후인 2017년 9월 23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에서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 국가적 차원의 피해조사위 가동과 조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Kookbang.dema.mil.kr, 2017.11.28). 이번에 실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만큼의 압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봉쇄전략(Blockade Strategy)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실효적으로 타격이 있는 경제적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과 검증단계 절차와 보조에 맞춰 경제적 제재를 점차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첨단무기체계를 이용한 군사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군사적 압박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동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동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Liska, 1062: 3). 양국은 지난 65년 동안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과 봉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양국은 매년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과 을지프리트림가디언(UFG) 연습을 통하여 연합 군사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는 대북 군사적 압박전략(Pressure Strategy) 효과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여 왔다. 따라서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상이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한국과 미국은 비핵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북한과 협상과 타협 등을 해왔다. 1992년 1월 14일 한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교환하였으며, 199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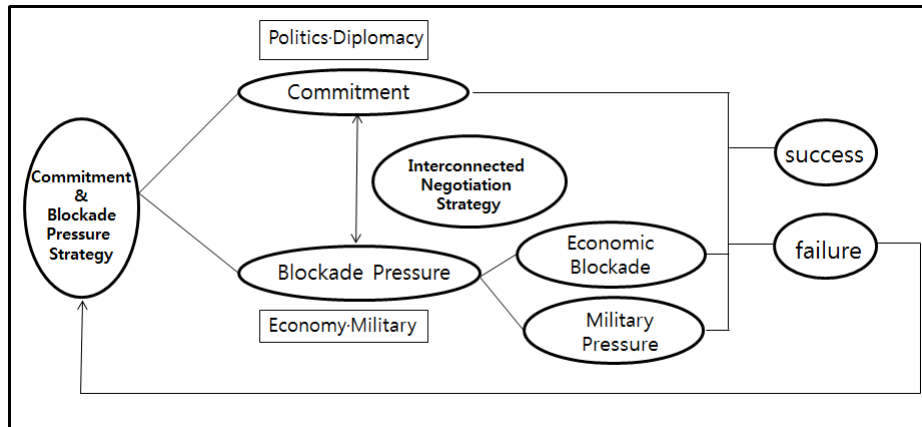


Figure 1.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concept

11일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3년 8월에 들어와 6자회담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타협을 하였지만, 그때 마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유엔안보리 2375호 채택 이후 효과가 나타난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 핵위협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적 협상전략(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이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위한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①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체제를 보장한다는 공약전략을 적용하고, ② 경제·군사적으로는 봉쇄와 압박전략을 적용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상호 연계한 협상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V. 결론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체제존속과 김정은 정권 안정의 결정적 수단으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총역량을 결집하여 핵실험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폐기를 위해 다방면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끝나고 30여기 정도의 핵탄두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기의 회담'이라고 일컫는 극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비핵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시작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건으로 항구적 체제보장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당사국들은 집요하고 긴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적인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을 발굴하여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위기로부터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고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정부의 효과적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공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공약과 봉쇄압박전략을 상호연계한 협상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은 더 이상 위기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협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힘, 시간, 정보 등을 강조하였다(Cohen,

1982; Cheon, 2005: 306). 따라서 한국은 북핵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경제, 군사력 등을 최대 활용하여 공약과 봉쇄압박을 상호 적절히 연계하여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을 개발 적용하여 북핵 위협을 제거해야 하겠다.

즉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를 보장하는 정치·외교적 공약과 함께 경제·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당군과 채찍을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국한된 자국 이익정책에 흔들림 없이 북핵 폐기에 대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을 실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hn, Chan Il and Syung Hyeon Joo. 2017. Kim Jung Eun Party-military Relations Research. *Military Issue*. 91: 165.

Alexander L. George. 1991. A Provisional Theory of Crisis Management. 24-25.

Benard Brodie. 1946. *The Absolute Weapon: Atomic Power and World Order*. New York. 75.

Cheon, Dae Yoon. 2005. *Conflict Management & Negotiation Strategy Theory*. Sunhak Inc. 299-321.

Cohen, H. 1982. *You Can Negotiate Anytime*. New York: Bantam Books.

Don Oberdorfer. 1997. *The Two Korea*, Reading Massachusetts. 255-256.

George Liska. 1962. *Nationin Alliance: The Limits of Independence*. Baltimore: *John Hopkins*. 3.

James L. Richardson. 1988. *Crisis Management: A Critical Appraisal in Gilbert R. Winham (ed.)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Boulders: Westview Press. 18-22.

Jo, Min and Jin Ha Kim. 2014. *North Korean Nuclear Diar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29.

Kong, Pyeong Won. 2017.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y and Operational Strategy, and Our Respons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8.

Kwon, Tae Young, Hun No, Hui Rak Park, and Jang Yeol Moon. 2014.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Responded*. Book Korea Inc. 128-130.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2004.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Nanjing, Chin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2016 Defense White Paper*.

Park, Hui Rak. 2014. *Conditions of Defense in the Age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Korean Academic Information*. 31-33.

Park, Hui Rak. 2017. *Citizens' Role and Tasks f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ilitary Issue*. 91: 125.

Chosun.com. 2016.1.6.

Chosun.com. 2018.5.25.

Edaily. 2017.5.16.

Hani.co.kr. 2018.5.7.

Hankookilbo.com. 2017.9.12.

Joongang.joins.com. 2017.10.15.

Joongang.joins.com. 2017.11.29.

Kookbangilbo. 2017.11.28.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16.1.6.

The Kyunghyang Shinmun. 2017.9.3.

The New York Times. 2018.5.28.

Yonhapnews. 2018.6.11.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공평원. 2017.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운용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책. 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8.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열. 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128-130.

박휘락. 2014. 북핵 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한국학술정보. 31-33.

박휘락. 2017.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과 과제. 군사논단. 91: 125.

안찬일, 주승현. 2017.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연구. 군사논단. 91: 165.

조민, 김진하. 2014. 북핵일지. 서울: 통일연구원. 129.

천대윤. 2005. 갈등관리와 협산전략론. 서울: 선학사. 299-321.

경향신문. 2017년 9월 3일자.

국방일보. 2017년 11월 28일자.

연합뉴스. 2018년 6월 11일자.

이데일리. 2017년 5월 16일자.

조선.com. 2016년 1월 6일자.

조선.com. 2018년 5월 25일자.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6일자.

중앙일보. 2017년 10월 15일자.

중앙일보. 2017년 11월 29일자.

한겨레. 2018년 5월 7일자.

한국일보. 2017년 9월 12일자.

Received: Jun. 25, 2018 / Revised: Jul. 20, 2018 / Accepted: Jul. 26, 2018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위기관리 및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위기관리 및 협상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보장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측면에서 봉쇄적 제재를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협력적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및 북미 실무회담에서 전략적, 전술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최대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관리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히 준비된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략으로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위기관리전략, 협상전략, 비핵화

Profiles **Ho Jung Kim** : He received his Ph.D. from Hannam University, Korea in 2017. He is a Adjunct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Nation Defense Strategy, Hannam University in Daejeon. Hi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issues regarding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ecurity and defense policy(ogoskim@hanmail.net).

Jong-ha Kim : He received his Ph.D. in Policy Studies from the School for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Bristol in the UK. 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Communication and Defense Studies, Hannam University in Daejeon. Hi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issues regarding defense policy, defense acquisition, and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He has published more than 10 books and more than 50 journal articles. His representative publications are *Future Warfare, Defense Reform and Acquisition Strategy* (2008)[in Korea]; *Defense Acquisition and Defense Industry* (2015)[in Korea] (jong-ha44@hanmail.net).